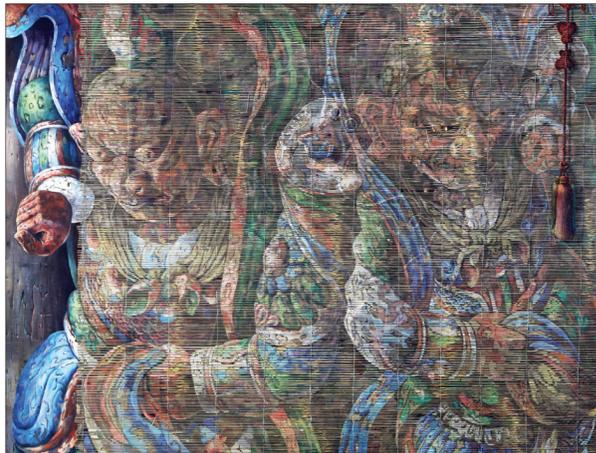


CULTURE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고 이강하 작가



'맥-아'



'맥-익식구조'

‘시민군 이강하’ 은둔생활 중 일군 전통미학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이강하 회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이번에는 그의 전통 미학에 대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망라된다.

광주 이강하미술관은 이강하 작가의 1980년~1990년대의 대표 작품 ‘脈 맥’ 연작으로 구성된 특별전을 2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이강하: 또 다른 세계’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맥’과 더불어 대중에게 한번도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한 13점.

이번 전시의 주요 테마인 작가의 ‘맥’ 연작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한국 구상계 작가들이 현실과 자신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리얼리즘으로 구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인식했듯 그런 시대적 상황과 사회성을 반영한 작품들로 일컫는다. 작가는 1970년부터 남도사람들의 애환과 한국미술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 탐구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1980년 조선대

‘...또 다른 세계’ 타이틀로 2월2일부터 13점 선보여 소장작품전 성격...‘맥’과 소개 안된 작품 만날 기회

미술학과에 재학하면서 더욱 증폭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작으로 시대에 맞는 시민군 활동을 하고 2년 여 지명수배자가 된 상태에서 전국의 사람들이 돌며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삶에서 가장 불운하고 불온했던 당시 마주했던 전국의 자연풍경과 사찰의 한국 전통 단청무늬, 그리고 남도 오방색의 색채는 작가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게 하고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상적 통로가 됐다는 풀이다.

‘맥’은 이런 과정에서 창작됐다. 한국미술의 정체성 확보와 자생력 탐구를 통해 불교와 샤머니즘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 민족정서와 가치, 역사와 사상 대한 근본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바탕이 됐다.

또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발’로 인해 민족 전통의 ‘감춤의 미학’과 더불어 ‘신비스러운 시각 효과’를 구성해내고 있다. 발은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을 말한다. ‘발’ 뒤에 불상이나 사천왕, 탈, 인물 등을 섬세하게 그려 극사실적 효과를 내면서 ‘발’을 통해 감춰진 전통문화와 사상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런 회화 방식은 샤머니즘적 내지는 유교적 정서와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고 오랜 시간 캔버스에 달아 붙여, 수행하듯이 그려나가 얻어낸 설득

력과 집념의 독자적인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이강하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수립함과 동시에 고 이강하 작가 연구와 소장품의 관리·보존의 중요성을 시민 및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자원 활성화와 소통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하미술관은 2018년 개관 이후 1년 중 한 차례 고 이강하 작가의 대표 작품을 시대의 주제 및 흐름에 맞춰 선보이는 등 소장 작품전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지역 의 작가의 과거 시대적 작품을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전시회’들을 구현하는 목적을 두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별도의 개막행사 없이 프리오픈으로



'맥'

진행되며, 1월 2회 네이버 및 전화 예약제로 도슨트를 운영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전남문협 문인들, 중앙문단 이끈다

한국문협 부이사장 노창수·윤영훈...평론분과 회장 강경호

광주·전남 문인들이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과 평론분과 회장에 당선, 중앙문단에 대거 진출했다.

광주문인협회 회원이 중앙문단에 간혹 1명씩 부이사장에 당선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3명이 한 번에 부이사장, 분과회장이 된 것은 처음이어서 광주·전남 문학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30일 한국문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28대 임원선거에서 광주문인협회 회원인 노창수 시인(전 광주문인협회 회장)과 윤영훈 시인(전 광주·전남아동문학회 회장, 전 전남시인협회 회장)이 부이사장에 당선됐다. 평론분과 회장에는 강경호 평론가(개간 ‘시와사람’ 발행인)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문인협회 28대 임원선거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부이사장 총 7명 가운데 지역 문인 2명이 당선됐다. 노창수 부이사장 당선자는 시분과를 대표하는 부이사장 후보로 나와 제27대에 이어 28대에도 이사장에 당선됐으며, 윤영훈 부이사장 당선자는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을 이뤘



노창수

윤영훈

강경호

다. 평론분과 회장이 된 강경호 발행인은 첫 광주·전남지역 평론분과 회장이 됐다.

한편 한국문인협회 28대 임원선거에서 이사장 자리에 도전한 김호은 당선자는 문협선거 이래 가장 많은 1664표차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뽑힌 지역문인 이외에 부이사장에는 강경호 시인, 구재기 시인, 김민정 시인, 이은 집 소설가, 분과별로는 박영하 시인(시분과), 김운중 시인(민조시분과), 김영두 소설가(소설분과), 권남희 수필가(수필분과), 김대현 희곡작가(희곡분과), 김정학 작가(청소년문학분과), 홍성훈 아동문학가(아동문학분과)가 각각 뽑혔다.

취임식은 오는 2월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문인협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정재경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제5회 히스토리 기획전 공모 수상작 ‘불효녀 클럽’이 오는 2월22일까지 제3층 광주여성전시관 히스토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불효녀스 101’ 전경.

“세상의 모든 불효녀들, 모여라” 광주여성전시관 히스토리 수상작 ‘불효녀 클럽’ 주제 내달 22일까지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전복시키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불효녀 클럽’이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11월30일 개막, 오는 2월22일까지 제3층 광주여성전시관 히스토리에서 진행 중인 광주여성가족재단 제5회 히스토리 기획전 공모전 수상작이다.

전시는 연출과 시노그라프, 그래픽 디자인이 3인(도민주, 문다은, 양재은)이 주축인 창작그룹 모이즈(MOIZ)가 기획했다.

전시는 총 5개 섹션으로, 효와 불효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대사회 속 삶의 가치와 윤리의식, 가족관계에서 불효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살펴본다.

전시장 입구에는 ‘불효녀 클럽’의 입장을 알리는 레드카펫과 금장 글씨가 번쩍이고, 금테 거울은 관람자가 스스로 불효녀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얼굴을 비춘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복이 마련, 입어볼 수 있어 전시의 몰입감을 높인다.

‘불효녀클럽 신입회원 모집 신청서’를 작성하면 비로소 불효녀성(Bulhyeonality)을 찾는 불효녀클럽 연구원들의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1섹션에서는 ‘불효녀성’에 관한 랩퍼 퍼포먼스 영상으로 전통사상에서 강조하는 ‘효’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

를 전달한다. 2·3섹션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불효가 무엇인지 투표할 수 있는 ‘불효녀스 101: 당신의 불효에 투표하세요’와 불효녀가 되기로 선언한 이유를 다룬 ‘불효녀 선언문’을 선보인다.

아울러 4·5섹션에서는 불효녀 콤플렉스를 극복하며 새 이름을 상상에 세진 ‘명예의 전당’ 및 또 다른 불효녀의 선언을 기다리는 ‘신입회원 모집’ 등의 감성이 가능하다.

전시는 영상으로 기록해 광주여성가족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전시관에 공유된다. 정재경 기자

ACC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공동협력으로 전시할 국내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등을 모집한다.

공동협력 전시 작품은 2021년~2022년 ACC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선보인 작품 13종이다. 조선시대 국문소설 ‘구운몽’을 현대 시각으로 각색한 조영각 작가의 ‘아름, 구름, 꿈’을 비롯해 광주의 오래된 동물설화를 수집, 재구성한 문창환 작

가의 ‘조립된 풍경화’ 등 다양한 작품이 포함돼 있다.

모집 대상은 미디어아트 상영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문화예술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면 2월1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5개 안팎의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062-601-4663. 정재경 기자

조무원 사회학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우리를 바꾸는 우리’ 출간기념 탐구회 내달 10일

동네책방 책과생활 2023 첫번째 북토크 ‘우리를 바꾸는 우리’ 출간기념 탐구회가 2월10일 오후 7시30분 책과생활에서 열린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우리를 바꾸는 우리(민음사刊)’의 저자이자 정치학 연구자인 조무원 작가가 김세영 편집자가 함께한다.

조 작가는 책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약속’의 관점에서 다시 보자고 제안한다. 저자의 연구 분야이기도 한 정치철학자 흡스의

정치사상부터 고전과 대중문화 및 문학작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의 힘 속에서 난민 문제까지 참여한 이슈들을 들여다본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 작가는 주권과 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관심을 갖고 정치이론과 사상을 공부한다. 최근에는 흡스의 정치철학을 통해 국가의 성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리처드 턱의



조무원 작가



저서 ‘흡스’를 옮겼다. 행사 참가비는 도서비 1만5000원이며, 참가신청은 책과생활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70-8639-9231. 김민빈 기자 alsqsl94@